

# 이재명 “일본, 돈 아깝다고 오염수 해양투기…전세계 기만”

### “투기 이어질수록 오염수 누적…10~20년 후 문제인식할 것” “우리 모두 힘 합친다면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시킬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제공동회의를 열고 오염수 투기 행위는 전세계를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주변국과 연대해 오염수 투기 반대 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0년 전 러시아 방사 폐기물 투기에 앞장서 반대하고 끝내 중지시킨 일본이다”라며 “그런 일본이 핵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은 전세계에 대한 기만이고 전세계에 돌아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변국과 자국민들조차 격렬하게 반대하는데도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인류사에 유례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

이날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 제1정당으로

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 평화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조했다. 저는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들의 뜻을 대신해 명백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달 17일에 이어 31일에도 야당, 시민사회, 종교계 등 국민 47만 명의 목소리를 담아 2차 국민 진정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접수했고, 어제는 기자회견을 열어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명백한 런던협약 위반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앞에선 오염수 방류를 옹호해놓고 정작 지난 6월까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인 나라가 미국”이라

며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홍콩은 전면 수입금지를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힘과 뜻을 모으고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낼 수 있다”며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만 해도 30년 간 무려 137만 t(톤)을 해양에 투기하게 된다. 예정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투기를 중단시킨다면 바다에 대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는 확신한다. 3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야만적인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결국 어느 시점에선 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해양투기가 이어질수록 핵오염수가 누적될 것이고 10년, 20년이 지난 후 세계인들은 일본의 이 행위가 얼마나 야만적인 행위인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일본 국민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만든 인류에 유해한 핵쓰레기를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세계인의 바다에 내다버린 것에 대해 세계인들의 비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께서 입장을 바꿔 지금이라도 해양투기



를 즉각 중단해줄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일본의 이러한 무도한 핵 폐수 해양 투기도 중단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변용일 기자

## 민주 “윤석열 정부, 외평기금 손 대려 해…국가재정 막장”

### 민주 홍성국 “세수결손 자초 이어 기금에 손대려 해”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감세 헛발질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기금을 손대려 한다”고 밝혔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역대급 세수 결손에 ‘돌려막기’가

지, 국가재정을 막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재추계 발표를 앞두고 외환평형기금을 공공 자금관리기금으로 넘겨 세수 부족을 해결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상반기에 한국은행에서 113조를 일시차입하며 현금서비스로 막더니, 이제는 예·적금 통장까지 깨서 재정적자를 메꾸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기금의 여유재원을 빼서 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건전 재정인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눈 가리고 아웅이 건전 재정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안에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예·적금·청약 통장, 보험 깨서 쓰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단기대출로 돌려막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국민도 이런 주먹구구로 살림을 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외환시장이 어디로 될지 모르는 상황에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게 정상인지 답답할 노릇”이라며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든 돌려막다가, 총선 끝나고 보자는 건가”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경제 정책까지 정략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정부의 기초체력은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은 ‘제발 그만 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라는 한 드라마의 명대사를 되새겨보길 바란다”고도 경고했다.   
 서선욱 기자

## 서동욱 도의장, 동부청사 개청식 참석 “동·서부권 상생 균형발전 촉진되길”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최근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열린 전라남도 동부청사 개청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주민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동부청사 1호 투자협약식, 미래 비전선포식, 제막식, 기념식수 등이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동부청사의 전신은 지난 2005년 동부권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순천에 설치한 동부출장소였다”며, “지난 2014년 균일한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동부출장소가 동부지역본부로 격상됐으나 주민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부청사 개청식을 계기로 주민들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체감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며 “동부청사 개청이 동부권과 서부권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